

소부장 펀드 투자로 기업 활력 제고

도, 주력산업 근간인 소부장 기업 육성 도모... 지난해 펀드 결성 후 전북기업에 20억 원 투자

전북도가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부장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산업 활력화를 꾀한다.

도는 지난해 결성한 소부장 펀드의 본격적 운용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소부장 펀드는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집중투자를 목적으로 전북도와 소부장 강소기업인

(썬네트 등이 출자한 조합이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공모 선정됐으며, 자금은 300억 원 규모이다.

당초 소부장 펀드조합은 4년 동안 조성액의 30%(90억 규모)를 도내 기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첫 해부터 경쟁력 있는 전북기업을 꾸준히 발굴해 지난해 총 투자규모(60억)의 33% (20억)를 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전북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조기에 많이 발굴된 만큼, 올해는 계획된 출자금액을 상반기에 모두 투자해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투자기업에 일회적인 자금제공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필요 시 후속 투자도 적극 검토해 도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펀드 외에도 자동차부품, 탄소소재, 신에너지 소재 분야 등 다

양한 사업에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지원으로 핵심 품목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해왔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소부장 펀드투자 활성화로 도내 기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력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분야 공급망을 안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종교 지도자, 통합의 민주주의 잘 이끌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7대 종단 종교계 대표들에게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잘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7대 종단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선거 시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열상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 사이에 지니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가 해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오 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서로 격려하며 위기를 넘는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둔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에서 화두로 제시한 국민 통합을 위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신년사에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은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며 국민 통합을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 자리를 빌려 당시 주요 국정운영 방향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기 말 국민 통합을 최우선 화두로 종교계의 적극 역할을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세버스·택시 기사 민생회복 지원

도, 설 명절 전인 24일부터 지원금 1인당 80만원씩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에게 민생 안정지원금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12일 도비 총 88억2,000만원을 투입해 전세버스 기사 1,900명, 택시 기사 8,500명에게 설 명절 전인 2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도내에 등록돼 있고, 20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2022년 1월 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다.

지원금은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일반택시법인과 개인택시·전세버스 조합 등을 통해 시·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금요청 등을 확인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시·군 교통부서 및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도내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에도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징물 공모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 등 3개 부문 접수... 3월 3일까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각종 공식문서, 행사·다양한 매체 등에 사용될 상징물 공모가 진행된다.

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위원회 상징물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2년차를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로 발돋움하고자 마련됐다.

응모 분야는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 3개 부문이다.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주제는 자치경찰이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 서비스 질이 향상됨을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는 '전북소통대로' 누리집 (<http://policy.h.jma.kr>)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공모신청서, 작품설명서, 서약서, 디자인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디자인 작품 원본은 자치경찰위원회(전북도청 내)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유관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3월에 최종 12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 작품의 경우 엠블럼, 마스코트는 각 3백만 원, 포스터는 2백만 원을 지급한다.

방출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의 상징성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국비 확보

노후 건축물개보수·목욕실 증개축·편의시설 보수 등 추진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국비 379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재난 약자들이 거주·요양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의 확충 및 환경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방수 등 노후화된 건축물 개보수 4개소, 목욕실 증개축 1개소, 진입로 포장공사 및 편의시설 개보수 2개소다.

그동안 전북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민선 체육회로 바뀐 뒤 법정법인으로 탈바꿈했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방체육회는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체육계의 목소리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다. /정은성 기자

도체육회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 환영"

지방체육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 됐다.

12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전북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민선 체육회로 바뀐 뒤 법정법인으로 탈바꿈했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방체육회는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체육계의 목소리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다. /정은성 기자

2022년 1학기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선거연설 · 웃음코칭		
<p>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 교양과목 담당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용면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E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p>		
< 전라북도 내 각 지역별 모집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스피치&웃음코칭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리더십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교급,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강주, 순창
김계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	김제, 부안
<p>상담전화 : 285-6676,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3월에 학교별로 개강</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